



# 기억하여 다가올 새 날을 열어가라

담임목사 김 정 석

“1.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신명기 8:1-6)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중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억하라”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고,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신명기를 크게 세 개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억해야 할 말씀. 둘째, 생각해야 할 말씀. 셋째, 잊지 않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것이 능력

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미래를 바꾸며 살아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겸손이 아닌 교만이 나타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어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본문 4절에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

## 온라인 영상 콘텐츠 이용 안내



주일설교, 온타임 묵상 등 영성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에서 광림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추가 영상을 손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되어 삶을 주도합니다. 본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 출애굽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참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1)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내면에 깊은 어두움 갖고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은총으로 받았습니.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그 땅을 구원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4절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부터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갈 수 없게 될 때에 그들을 축복하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큰 여리고 성이 앞에 있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전 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 빛의숲 서점



광림사회봉사관 내 위치한 편안하고 따뜻한 빛의 숲 서점에는 성경책과 다양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02-2015-1187